

‘말똥많은’ 동함평산단 시공사 변경

기존 시공사 “공사금액 타산 안 맞아” 포기의사 밝혀

郡 “공사엔 차질없어”... 무리한 민자유치 실패 우려도

동함평산단입지 조성 과정에서 불법 협의가 있어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시공사가 변경됐다. 기존 시공사가 포기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29일 함평군에 따르면 동함평산단 시공사로 선정됐던 O건설이 최근 공사금액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공사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함평군은 동함평산단 시행사로부터 건설업체 2곳을 추천받아 적격 심사를 한 결과 S건설

을 시공사로 재선정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11년 11월 협약에 따라 산단 시공을 맡기로 했던 O 건설이 설계가액(260억원)의 80% 수준인 208억원에 공사를 하기로 해 놓고 최근 타산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공사를 포기해 시공사를 재선정했다”며 “공사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사업비 711억원(국비 84억원, 군비 77억원, 민자 550억원)이 투입되

는 동함평일반산단은 산업시설용지 49만2000㎡, 지원시설용지 1만3000㎡, 공공시설용지 23만㎡ 등 모두 73만5000㎡ 규모로 내년 완공될 예정이다.

동함평일반산단이 조성되면 1차급속,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전기장비 제조업 등 52개 업종 80여개 업체가 입주해 약 3600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지방세수 증가, 주민소득 증대, 지역산업 구조 개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함평군이 무리한 조건으로 민자를 유치해 분양에 실패할 경우 군 재정에 큰 타격이 불

가피하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서 감사원은 함평군이 민간업체로부터 550억원을 투자받는 형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해 추진한 동함평산단 조성사업에 정부의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은 당시 공개경쟁입찰 방법을 통해 설계·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사업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민간업체를 내세워 수의계약으로 설계·시공업체를 정한 바 있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진도 단호박 일본·홍콩 간다

군, 올해 1100t 수출 결정

진도 단호박의 일본과 홍콩 수출이 최근 결정됐다. 영양과 품질면에서 최상급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국내 판매도 덩달아 늘어날 전망이다.

진도군은 29일 “호박사랑진도작목회에서 올해 홍콩과 일본으로 단호박 1100t(시가 11억원 상당)을 수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

특히 호박사랑진도작목회는 단호

박 신품종 보급으로 다른 지역보다 15일 정도 빨리 수출을 시작, 해외에서 먼저 단호박 시장을 점유하는데 성공했다.

진도산 단호박이 일본과 홍콩에 직접 수출할 수 있었던 계기는 체계적인 작목회원 관리 및 교육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품질이 좋고 여러 재배 방법들을 연구해 타지역 보다 수확시기를 앞당겼기 때문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목포시, 맞춤형 복지행정 눈길

관내 의료기관-경로당

‘주치의제’ 결연 서비스

목포시가 신속하고 구체적인 복지행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29일 “을 상반기 동안 추진한 의료·식생활 곤란세대 해소, 위기가정 관리, 장애인 자활대책, 독거노인 맞춤대책, 취약계층 일자리 마련 분야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하반기 시행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을 상반기 관내 139개 의료기관과 171개 경로당 간 ‘우리경로당 주치의제’ 결연식을 체결해 지금까지 25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검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빈곤층, 취약계층, 중증환자 등 의료비 부담이 어

려운 가정을 발굴해 108명에게 긴급의료비 1억6300만원을 지원했다.

또 목포노인복지관, 하당노인복지관 등 6개소 복지관에서 60세 이상 결식우려 독거노인 6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1100만원), 친정부모 초청 가족여행, 다문화가정 법률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조손세대 학습지도 연계사업, 소년소녀가장 후원자 연결 등의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관내 1만4000여명의 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 287명에게 일자리 제공과 78명에게 취업교육을 실시했다.

을 상반기 23개 주민센터에 ‘좋은 이웃들’과 ‘복지사각지대 신고창구’를 운영한 결과 복지사각지대 1637세대를 발굴하기도 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농촌여성들의 자기계발 노력

신안군 14개 읍면 700여명 농촌여성들이 다음달까지 두 달 동안 친환경생태 사용, 영농폐기물 수거, 생활원에 실습, 친환경 비누 만들기, 자기계발을 위한 공예품 만들기 등 자기계발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돌아온 ‘양심갯돌’

관광객이 주워간 보길도 갯돌 100여개

택배상자에 고스란히 담겨 배달돼 화제

보길면사무소에 최근 배달된 택배상자가 화제가 되고 있다. 다른 아닌 몇 년전 보길도 예송리 해변에서 갯돌 100여개를 주워간 관광객이 이를 다시 되돌려 보내왔기 때문이다.

완도군 보길면사무소는 29일 “지난 18일 작은 상자 하나가 배달됐는데, 이 상자에는 어른 손톱 크기의 갯돌 100여개가 투명 비닐에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상자에는 간략한 사연을 적은 홍모씨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는 것이 보길면사무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홍씨가 몇 년 전 보길도 예송리 해변에 피서하다가 갯돌이 예뻐 어항 속 장식품으로 끌리고 무심코 가져갔다고 썼다.

그러나 지난해 초강력 태풍 ‘볼라벤’으로 많은 갯돌이 사라지고 해변에 화재까지 발생, 상록수림

등이 불에 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갯돌을 되돌려 보내기로 했다고 적었다.

그는 “물고기를 기르는 어항 속에 있는 돌을 보내드립니다”라고 시작한 편지에는 “보길도에는 돌 하나라도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했다.

면사무소는 돌아온 갯돌을 예송리 해변에 되돌려 줬다.

최창주 보길면장은 “보길도 예송리 해변의 명물인 갯돌을 관광객이 하나, 돌씩 가져간다면 아름다운 해변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소중한 자연 유산 보존에 우리 모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도=정문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전북

中 진출 주얼리 업체 이어 기계·섬유업체들도 ‘유턴’

군산·익산시와 잇단 MOU

중국에 진출한 주얼리 업체들이 국내 공단으로 동반 유턴(U-turn)한 데 이어 기계·섬유업체들도 잇따라 유턴을 결정, 전북 군산·익산시에 투자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유턴 기업은 해외에 진출했다가 현지 사업장을 접고 돌아와 국내에 재투자하는 업체를 말한다. 기계업체 2곳은 군산으로 귀환하고, 주얼리업체 3곳과 섬유업체 1곳은 익산으로 돌아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완주 전북지사,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지자체장과 유턴 기업 6개 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식을 열었다.

이로써 전북은 지난해 8월 주얼리업종의 동반 유턴 이후 총 26개사를 유치해 유턴 기업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유턴 기업은 약 7500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유턴한 6개사는 전북도와 코트라가 중국 현지 유치 활동을 통해 발굴한 업체다. 전북도는 입지보조금을 지원해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며, 코트라는 현지 사업장 청산 작업을 돕는다.

정부는 유턴 기업에 세금 감면, 산업단지 우선 입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유턴 기업 지원법을 지난해 제정했다. 유턴 기업은 향후 5년간 6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 다.

/군산=박규승기자·전북취재본부장

단신

단신

“시민 보행권 확보... 보도블럭을 지켜라”

정읍시, ‘보도공사 실명제’ 등 10계명 시행 홍보 나서

인도 위 적치물 방지, 경계석 파손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걸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보도블럭 10계명’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시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29일 “노상 적치물 방지와 경계석 파손 등 보도상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블럭 10계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도블럭 10계명은 먼저 ▲보도공사 실명제 ▲부실업체 윈스트라이크 아웃제 ▲보행안전 도우미 배치 ▲매년 11월 이후 보도공사 금지 ▲보도파손 당사자 보수비용 부담 ▲거리모니터링단 운영 등이다. 또 ▲시민불편신고제 ▲보도 위 불법 주차차 및

적치물 오토바이 단속 ▲납품물량의 3%를 남겨 두는 보도블럭 은행 운영 ▲협업체 구성 등도 포함됐다.

보도공사 실명제는 공사구간 시작과 끝 지점에 공사명칭과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리, 감독자 등을 기록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윈스트라이크 아웃제란 단 한번이라도 전면 재시공 조치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는 규모에 상관없이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최대 2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행안전 도우미는 보행로 양측에 총 2명이 배치돼 지나는 시민을 안내하고 보행안전 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또 보도에 불법으로 만들어진 차량

진입시설을 조사해 건물주와 점포주에 대해 점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하는 한편, 차량 진출입로의 점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주차차로 인해 보도블럭이 파손될 경우에는 파손자에게 보수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적치물 방지와 경계석 파손 등 불편사항을 상시 점검하는 거리모니터링단도 운영된다. 동당 1명을 선발해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사항과 불법 파손, 물고임 상습 불법 주차차등을 신고하며 연말에는 우수 요원에 대해 표창장 방침이다.

시는 2014년부터 전면시행을 염두에 두고 최근 거리 모니터링단 8명을 위촉하고 곧바로 보도블럭 10계명 운영제도에 대한 홍보에 착수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남원시, 풍수해보험 4282세대 가입 완료

남원시는 29일 “23개 읍면동에 풍수해보험 전담창구를 설치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재해 취약자 4282세대를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단체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연중 풍수해보험 홍보 등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가입을 독려해 많은 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과 온실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일반인은 보험료의 55~62%, 기초생활수급자 86%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해주는 재난관리제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정읍, 초등생 ‘도서관에서 하룻밤’ 체험캠프

정읍기적의도서관은 지난해 이어 올 여름방학에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박2일 도서관 체험캠프인 ‘도서관에서 하룻밤 자기’를 운영한다. “우리집 왕따인 아빠와 친해지다”를 주제로 다음달 2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는 선착순 모집된 초등학생과

아빠 50여명이 참여한다. 참여대상은 현재 기적의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서관 팟파머기 스태프왕’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가족을 우선 선발한 후 필요 시 30일까지 일반회파자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부안 블루베리 신성장 소득품목 부상

38여 농가 올 14억 예상

부안을 전국 농가소득 최고도시로 만들기 위한 농가소득 5000만원 이상 5000호 육성(5/5프로젝트)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신성장 소득품목으로 ‘블루베리’가 급부상하고 있다.

29일 부안군에 따르면 블루베리는 지역 내 친환경인증 등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기술을 갖춘 38여 농가가 11ha 규모의 면적에서 재배해 올해에만 생과 판매로 14억원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수확되고 있는 블루베리는 생과 1kg에 2만 5000~6만원에 소비자 직거래로 판매 중이다. 이는 지난 2011년 시범 보

급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3년 동안 공을 들여온 결과로 사업 초기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부안의 블루베리 생산농가는 농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고 있는 유용미생물(EM)을 활용해 토양 근권환경개선 등 친환경재배로 품질이 우수한 블루베리를 생산하고 있다.

군 농촌활력과 관계자는 “블랙베리류에 대한 시장성과 소득성 등을 분석해 향후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친환경 농법을 활용한 생산 및 유통과 가공체계를 구축해 향후 부안을 대표하는 소득 작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정재용기자 jiy0681@



미신고 오페수 조사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내 장류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최근 자발적으로 오페수처리장에 미신고된 유입수 조사에 나섰다. 민속마을 1단지 농업회사 2단지으로 이뤄진 장류특구단지에서 나오는 오페수 양은 한 달에 무려 600t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부안, 내달 1일부터 ‘넙의병 축제’ 개최

부안군농업기술센터는 부안 병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5일 동안 ‘부안 넙의병 축제’를 부안읍에서 개최한다. 축제는 1일 오후 5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디가공식품 시연행사 및 판매와 관광객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특히 주류와 주스류, 과자류, 떡류 등 20여개 참봉 관련 제품을 선보이며 누에의 일생, 컬러누에 관찰 및 체험 등 다양한 체험거리도 제공한다. 또 야간에는 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안=정재용기자 jiy0681@

순창군, 훈몽재서 유학강회 열려

유학발전의 산실로 자리매김한 훈몽재에서 지난 28일 제3회 강회회가 열렸다.

이날 강회에는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한 최영일 군의장과 하서 학술재단 김인수 재단이사, 전국유림, 유학 관련 대학교수, 관내 유관기관 사회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강회는 여름방학동안

훈몽재에서 수확한 전주대, 원광대, 안동대, 상지대 등 50명의 학생이 30일 코스 유학교육반을 수료하는 마지막 단계인 학문진취도 시험과 유림윤강 과정으로 구성됐다. 순창군민은 훈몽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훈몽재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훈몽재 관리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